

보도설명자료 (‘12. 11. 27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SBS “수십억 들인 가짜양주 감별칩 무용지물”

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(‘12.11.27, SBS 취재파일)

1. 보도내용 (‘12.11.27, SBS 취재파일)

- 정부 예산으로 추진된 주류 진품확인 사업 관련 ①유흥업소에 양주 진품인증 판독기 미비치 ②무선인식칩(RFID)의 고유번호 쉽게 복제 가능 등으로 사업성고가 무용지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① 진품인증 판독기는 내년(‘13.1.1)부터 전국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비치 의무화*될 예정으로, 현재 진품인증기기가 비치되지 않은 유흥업소 (41천개 업소중 2만개)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계도 및 홍보중임

* 국세청고시에 의해 제조시 RFID태그 부착 의무화 및 6대광역시 유흥업소 양주 진품확인 의무화는 기 시행중이며, ’13.1.1부터 전국 유흥업소로 확대 시행 예정

- ② 양주 진품확인 서비스는 RFID 태그칩의 일반코드와 보안영역에 암호화된 보안코드를 통해 진품여부 확인이 가능한데,

- 일반코드는 제품의 ID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 RFID 리더기로도 확인이 가능한 반면, 보안코드는 국세청 서버의 암호키 없이는 복제가 불가능

* 암호키는 양주 제조사 개별적으로 부여되며, 국세청 서버를 통해서만 엄격히 관리

* SBS에서 시현한 복제태그는 단순 일반코드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안창용 과장
김은경 사무관(02-2110-5153)